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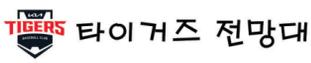


4연패 뒤 연승으로 분위기를 살린 KIA가 NC 원정에 이어 KT와의 홈경기를 통해 1위 지키기에 나선다. 임기영과 이의리가 부상 복귀전을 갖고 1위 싸움에 가세하게 된다.

<KIA 타이거즈 제공>

# 위기 탈출 KIA, 1위 독주 이어간다

### ‘스윙승의 기억’ 5위 NC 원정...상승세 KT와 안방 격돌 임기영·이의리 마운드 복귀...양현종 2000 탈삼진 ‘-5’



위기를 넘긴 ‘호랑이 군단’이 살아난 타선의 힘과 마운드 재정보로 1위 지키기에 나선다. 사직 원정에 이어 홈에서 두산을 만난 KIA에는 험난한 한 주였다. 5연승 길목에서 당시 최하위였던 롯데를 만나 시즌 첫 3연패를 당했고, 두산과의 첫 경기에서는 충격적인 재역전패가 기록됐다. 8회 말 이우성의 역전 스리런이 나왔지만 9회초 마무리 정해영이 양의지에게 동점 투런, 장형석이 김재환에게 역전 투런을 허용하면서 KIA는 4연패에 빠졌다. 이날 패배로 두산은 승차 없는 2위로 KIA를 추격했다. 1위 수성을 놓고 벌인 25일 경기, 살아난 타선의 집중력과 양현종의 호투가 눈부셨다.

KIA가 3회말 공격에서 두산 선발 브랜든을 상대로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초반 싸움을 벌였다. 득점 지원을 받은 양현종은 7회까지 1실점(비자책점)으로 마운드를 지키면서 연패 탈출의 주역이 됐다. 타선의 상승세는 26일에도 이어졌다. 나성범이 부상 복귀전에 나선 알칸타라를 상대로 투런포를 날렸고, 이어 타석에 선 ‘최고침’ 최형우도 밀어서 담장을 넘기면서 백투백 홈런을 장식했다. 박찬호는 시즌 첫 홈런으로 2타점을 올리면서 KIA는 4연패 뒤 연승으로 한숨을 돌렸다. 2위 두산을 두 경기 차로 밀어낸 KIA는 방망이

힘을 믿고 NC 원정에 나선다. 지난 19일 이후 1주일 만에 다시 찾은 창원이다. 앞선 만남에서 KIA는 예상과는 다른 ‘스윙승’을 장식했다. 선발 고민 속 전개된 시리즈였지만 나성범이 4타점 활약을 하면서 분위기를 바꿨다. 그리고 이우성이 9회 2사에서 결승 솔로홈런을 장식하면서 스윙승에 마침표를 찍었다. 지난주 강한 선발들을 연달아 만나면서 좋은 공부를 한 타자들이 상승세의 타격으로 다시 한번 NC 공략에 나선다. 2위에서 호시탐탐 1위를 노리던 NC는 KIA전 스윙패 여파로 5위까지 내려왔다. 앞선 잠실 원정

에서 LG에도 스윙패를 당하는 등 4연패 중이다. 하지만 NC는 지난 8개로 가장 많은 홈런을 기록했다. 지난 주 4승 1패를 수확한 KT는 마운드 흐름이 좋다. 특히 팀 평균자책점을 2.87로 묶으면서 승리를 만들어냈다. KIA는 마운드 싸움을 위해 전력 재정보에 나선다. 최종 리허설을 끝낸 임기영과 이의리가 새로운 전력으로 투입된다. 두 선수는 지난주 삼성과의 퓨처스리그 경기를 통해 부상 복귀를 위한 마지막 점검 시간을 가졌다. 임기영과 이의리는 주말 선수단에 합류해 부상 복귀를 위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4경기 연속 5이닝을 지키면서 선발로 자리매김한 황동화와 함께 임기영과 이의리가 이번주 마운드 기싸움에 나서게 된다. 임기영과 이의리의 투구

수가 제한적인만큼 세 선수를 활용해 유동적으로 선발진이 돌아갈 전망이다. 부지런히 달려왔던 좌완 광도규는 재중전의 시간을 갖는다. KIA는 27일 광도규를 엔트리에서 말소했다. 2년 차 광도규는 시즌 초반부터 볼펜의 핵심으로 활약을 했다. 지난 시즌 14경기 출전에 그쳤던 광도규는 올 시즌 벌써 29경기를 소화했다. 긴박한 상황에서 연달아 투입되는 등 체력적인 부담도 더해지면서 최근 페이스가 좋지 못했다. 한편 양현종은 이날에 이어 탈삼진 기록을 준비하고 있다. 양현종은 지난 25일 두산전에서 KBO 리그 통산 두 번째 2400이닝을 기록했다. 다음 등판에서 5개의 탈삼진을 더하면 양현종은 2000탈삼진을 채운 두 번째 선수로 이름을 남기게 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광주FC, 포항 상대 ‘안방 무패’ 잇는다

### 오늘 K리그1 15라운드 최근 2경기 무승 8위 그쳐 ‘천적’ 이호재 경계 대상

광주FC가 포항스틸러스전 홈 강세를 이어간다. 광주는 28일 오후 7시 30분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포항스틸러스를 상대로 K리그1 15라운드 홈경기를 갖는다. 승리가 갈릴때 두 팀의 만남이다. 광주와 포항은 최근 2경기에서 1무 1패를 기록했다. 공격을 주도하고도 전북현대에 0-3 대패를 당했던 광주는 14라운드 인천 원정에서는 눈앞에서 승리를 놓쳤다. 1-0으로 앞선 상황에서 전개된 후반 추가시간, 아쉬운 페널티킥이 선언됐고 무고사에게 동점골을 허용했다. 광주의 시즌 첫 무승부다. 4월부터 무패행진을 이어왔던 포항도 수원FC에 0-1패를 기록한 뒤 앞선 서울과의 대결에서는 2-2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포항이 앞선다. 포항이 7승 5무 2패(승점 26)의 전적으로 1위 울산HD를 승점 1점 차로 쫓고 있지만, 광주는 5승 1무 8패(승점 16)로 8위에 머물고 있다. 최근 10경기 전적을 봐도 광주가 2승 2무 6패로 포항에 뒤진다. 하지만 지난 시즌 홈에서 진행된 두 번의 맞대결에서 광주는 패배를 기록하지 않았다. 공격의 흐름은 좋다. 득점을 위해 적극적인 공세를 벌이면서 앞선 인천전에서도 11개의 슈팅을 날렸고, 7개의 유효슈팅을 장식했다. 앞선 전북전에서 18개의 슈팅과 11개의 유효슈팅을 남기면서

뜨거운 공세를 펼치고 있다. 하지만 번번히 상대의 좋은 수비에 막히거나 골대 불운에 울고 있다. 공격의 정교함으로 흔들리는 수비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앞선 포항원정에서 상대 공격진의 높이에 밀려 고전했던 광주는 변준수(190cm)-허을(192cm)로 승점을 지키겠다는 각오다. 전체적인 수비 조직력도 좋아지는 모습이다. 정호연이 중원 압박과 역습에 강점을 보이는 포항 공략을 위해 전면에 나선다. 인천원정에서 굳게 닫혀있던 상대 골문을 뚫는 헤더를 선보인 최경록도 자신감을 더해 포항 공략에 나선다. ‘신형 진공청소기’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박태준도 든든하다. 지난 맞대결에서 포항 오베르타에게 발이 묶였던 가브리엘의 폭발력이 필요한 경기, 광주 수비진은 올 시즌 7골을 장식한 정재희를 잘 분쇄해야 한다. 광주의 천적인 이호재도 경계 대상이다. 포항의 전력 누수도 있다. 베테랑 수비수 신광훈과 주전 공격수 조르지가 부상으로 출전이 어려운 전망이다. 광주는 대구-전북-인천전에서 연달아 페널티킥 골을 허용하면서 아쉬움을 삼켰다. 경기 종료 직전 페널티킥골을 허용하면서 기록된 인천전 무승부 충격도 컸다. 마음과 다른 결과와 판정에 광주 선수단이 동요하고 있다. ‘원팀’과 ‘평정심’이 필요한 광주다. 광주가 무승부의 아쉬움을 지우고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집중력을 발휘해 승리를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뒷심’ 여수여중 송수희 신기록으로 ‘금빛 총성’



여수여중 송수희(3년·사진)가 부별신기록으로 ‘금빛 총성’을 울렸다. 송수희는 지난 26일 나주 국제사격장에서 펼쳐진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사격 종목 여중부 공기소총 개인전에서 251.9점으로 1위에 올랐다. 251.9점은 부별신기록이다. 송수희는 본선에서 623.0점으로 8명 중 7위로 결선에 진출했지만 뒷심을 발휘하며 부별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는 “처음부터 자신이 있었다. 메달을 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며 “첫 발을 쏘았을 때 뭔가 더 자신감이 불고 잘 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전했다. 송수희가 사격을 시작하는지는 3년째다. 그는 중학교 1학년 때 교내 사격 체험수업을 통해 소총을 처음 손에 쥐었다. 송수희는 “체험을 해봤는데 사격이 멋있어 보였다. 사격부에 들어가려고 부모님께 허락을 받았다”고 처음 사격을 시작하게 된 순간을 전했다.

### 7위로 결선 진출...MVP 선정 광주, 여중부 공기소총 단체 銀

그에게 자신감을 심어준 것은 주변에서 건네는 응원과 격려였다. 송수희는 “가족들은 ‘잘 못해도 되니까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라’고 편안하게 말해주는 편이다. 코치님도 자신감을 많이 주신다. ‘긴장하지 말고 차분히 쏘라’는 조언을 자주 해주신다”고 말했다. 이날 송수희와 함께 공기소총 단체전에 출전한 여수여중 고기은, 이옥빈, 김해은(이상 3년)은 친구이자 경쟁자로서 서로의 자극제가 되어주고 있다. 호흡이나 격발 타이밍에 대해 직접적인 피드백을 나누기도 하고,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았는지 서로 체크해주기도 한다. 이들은 “(송)수희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집중력이 대단하다. 마치 로봇같이 쏜다”며 장난섞인 진심을 전했다. 김해은은 “같이 훈련하다보면 재미있기도 하지만 분위기가 살벌해진다.서로의 점수를 보면서 경쟁심도 생기고, 성장하는데 원동력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집중력과 강한 정신력이 중요한 사격에서 송수희의 ‘로봇 같은’ 모습은 그의 빠른 성장에 큰 역할을 했다. 대회 사격 종목 최우수선수로 선정된 송수희는 “열심히 해서 더 큰 선수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여수여중 문해란 지도자는 “보여주지는 마음으로 1년간 이를 갈았다”며 “수희는 정말 대범하다. 사실 수희가 올 초에 좀 주춤해서 ‘딱 결선만 가자. 그 다음부터는 운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잘해줬다. 소원을 풀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광주선수단은 여중부 공기소총 단체전에서 대회신기록으로 은메달을 획득했다. 김민정·라현영·정승희(광주체육 3년), 최한별(월계중 2년)로 구성된 광주 선수단은 여중부 공기소총 단체전 본선 경기에서 1869.0점을 기록하며 1위 경북(1877.2점·부별신기록)에 이어 2위에 올랐다. /나주·김진기 기자 jinggi@